

The Monkeysphere is the group of people who each of us, using our monkeyish brains, are able to conceptualize as people. Most of us do not have room in our Monkeysphere for our friendly neighborhood sanitation worker. So, we don't think of him as a person. We think of him as The Thing That Makes The Trash Go Away. It's the way our brains are built. We each have a certain circle of people who we think of as people, usually our own friends and family and neighbors. Those who exist outside that core group of a few dozen people are not people to us. They're _____.

Remember the first time, as a kid, you met one of your school teachers outside the classroom? Do you remember that surreal feeling you had when you saw these people actually had lives outside the classroom? I mean, they're not people. They're teachers. [3점]

- ① inside our very intimacy boundaries
- ② leading their lives in their own ways
- ③ reminding us of their meaningfulness
- ④ sort of one-dimensional bit characters
- ⑤ not coming to us in any fractional shapes

*본 문제의 저작권은 햇님쌤에게 있습니다.



햇 설

The Monkeysphere is the group of people who each of us, using our monkeyish brains, are able to conceptualize as people.

monkeysphere는 우리의 원숭이와 같은 뇌를 사용하여 우리 각각이 사람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개념으로 시작하는 도입부입니다. monkeysphere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sphere라는 뜻에서도 보이듯, 일종의 '영역'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집단' 즉,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해에서 사용될 때 영역이라는 말은 그 안과 밖을 나누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영역 바깥에 있으면 우리에게 '사람'이 아닌 것이 되고 이 영역 안에 있어야만 우리에게 '사람'으로 개념화 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Most of us do not have room in our Monkeysphere for our friendly neighborhood sanitation worker.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monkeysphere 안에 우리의 친근한 동네 환경미화원을 위한 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독해를 할 때는 항상 '유기성'을 전제해야 합니다. 즉, 앞문장과 뒷문장은 반드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앞문장과 뒷문장이 반드시 어떤식으로든 내용상의 연계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내용상의 연결점을 찾아내려고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 미화원'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이 등장했으므로, 이는 앞의 문장과 G-S combination을 이루고 있는 문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앞 문장은 보다 넓은 범위의 주제를 다루는 General statement이며, 이 문장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 부연설명을 가하는 Specific statement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미화원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것은 결국, 환경미화원은 우리의 monkeysphere 밖에 있다, 즉, 우리에게 '사람'으로 개념화되지

100점의 Bible Hyper 빈칸추론 Reload #1

않는다는 것의 예시인 것입니다.

** G-S combination : essay writing에서 매우 보편적이며, 중요한 글쓰기 전략 중 하나로, 보편적이고 함축적인 진술과 그에 대한 세부적 예시나, 부연설명 등이 뒤따르는 방식으로, 전자를 General statement, 후자를 Specific statement라고 합니다. 이 둘의 순서는 중요치 않으며, 전자는 후자를 포괄해야 하고, 후자는 전자에 대한 구체화를 이뤄야 합니다. 이 둘의 관계를 잘 관찰함으로써 글의 유기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수능에서도 이를 이용한 문제풀이가 가능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So, we don't think of him as a person. We think of him as The Thing That Makes The Trash Go Away.

그래서, 우리는 그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를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유기성을 살려주려는 의식적인 노력과 문장 안에 사용된 어휘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정확한 해석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즉, 환경미화원을 'The Thing'이라고 묘사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person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the thing으로 생각한다'라고 해줘야 비로소 이 부분이 그냥 흘려보내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글의 이해를 공고히 해주는 요소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It's the way our brains are built. We each have a certain circle of people who we think of as people, usually our own friends and family and neighbors. Those who exist outside that core group of a few dozen people are not people to us. They're sort of one-dimensional bit characters.

그것이 우리의 두뇌가 만들어져 있는 방식이다. 우리 각각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정한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보통 우리 자신들의 친구, 그리고 가족, 그리고 이웃들이다. 수십명 정도의 사람들의 그 핵심 집단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일차원적인 조각난 캐릭터들과 같은 것이다.

100점의 Bible Hyper 빈칸추론 Reload #1

*a certain circle of people who we think of as people

= the group of people who each of us are able to conceptualize as people

이렇게 paraphrasing을 하고 나면, 빈칸의 주어가 되는 they는 이 circle, sphere의 바깥에 있는 사람임을 확실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들은 '사람이 아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평가원의 중후반 빈칸은 언제나 빈칸 전에서 어느 정도의 결론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빈칸이 되지 않습니다. 즉, 그것을 기반으로 좀 더 '살이 붙은' 혹은 비유성 표현들로 바뀌는 경우가 많고, 빈칸의 뒤에서 이를 더욱 구체화해주는 형태를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그런 평가원 스타일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member the first time, as a kid, you met one of your school teachers outside the classroom? Do you remember that surreal feeling you had when you saw these people actually had lives outside the classroom? I mean, they're not people. They're teachers.

아이 시절에 당신이 처음으로 교실 밖에서 선생님들 중 한 분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는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교실 밖에서도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당신이 가졌던 초현실적인 느낌을 기억하는가? 내 말은,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선생님들이라는 것이다.

*글의 유기성을 잊지 맙시다. 갑자기 등장한 선생님들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주제와 연관시켜야 합니다. 즉, 이들은 monkeysphere를 기준으로 그 안에 있거나 밖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빈칸 전부터 이어지는 흐름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이들이 바로 그것에 대한 예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선생님들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표현이 나와있습니다. 즉,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로서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들을 마주했을 때, 매우 초현실적인 느낌(이질감)을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특정 영역 밖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환경미화원과 같이 '선생님', '환경미화원'으로만 우리에게 각인된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